

# KIA 백용환 '안방 컴백' 속도낸다

지난해 9월 십자인대파열로 수술...예상보다 빠른 회복

퓨처스서 예열 "야구하는 게 행복...빨리 돌아가고파"



'호랑이 군단'의 포수 백용환에게 특별했던 야구 경기였다.

KIA 타이거즈 퓨처스 선수단이 지난 29일 챔피언스필드에서 경찰야구단과 경기를 가졌다.

KBO 퓨처스리그 먼데이 나이트 베이스볼 경기로 진행되면서 조명시설이 있는 챔피언스필드로 이동해 선수들이 경기를 치른 것이다. 덕분에 월요일이었던 이날 챔피언스필드에 환하게 불이 밝혀졌다.

이날 KIA는 3-4로 뒤진 8회 무사 2·3루서 타진 류승현의 2타점 역전 적시타와 이경록의 채기 투런으로 7-4로 이겼다. 2-4로 뒤진 8회 마운드에 올랐던 홍건희가 역전극 속에 승리투수가 됐고, 한승혁은 최고 156km의 직구를 앞세워 탈삼진 2개를 뽑아내는 등 삼자범퇴로 9회를 막으며 세이브를 기록했다.

경기가 끝난 후 KIA 덕아웃에서 환한 표정의 포수 백용환을 만날 수 있었다. '난적' 경찰야구단과의 경기에서 역전승을 이룬데다 익숙하고 그리운 챔피언스필드에서 다시 경기를 하게 된 만큼 백용환의 얼굴이 밝았다.

지난해 9월 14일 넥센전은 챔피언스필드에서 치른 백용환의 마지막 경기였다. 그는 다음 날인 15일 LG와의 원정경기 도중 부모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상으로 쓰러졌다. 이날 포수로 선발 출전했던 백용환은 3루와 홈 사이 런다운 과정에서 주자를 아웃시키려다 부상을 당했다. 어떤 충돌도 없었지만 갑작스럽게 자리에 주저앉은 그는 이후 왼쪽 무릎 십자인대 파열 진단

단자 받으면서 수술대에 올랐다.

"스피이크 안에서 발이 돌아가면서 부상을 입었다"는 게 백용환의 설명이었다.

지금 생각해도 속상하고, 안타까운 부상 순간이었다. 특히 경기 내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는 포수이기에 그의 부상을 지켜본 이들의 걱정은 더 컸다. '과연 다시 마스크를 쓰고 안방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백용환은 이런 우려를 뒤로하고 예상보다도 빨리 그라운드로 돌아왔다.

야구경기가 진행됐던 이날 백용환은 원래 자리인 안방은 지키지 못했다. 5번 지명타자로 나온 그에게는 올 시즌 6번째 경기이자, 잠시 재활군에 다녀온 뒤 치른 두 번째 경기였다.

백용환은 지난 6일 kt와의 퓨처스 경기를 통해 부상 후 처음 정식으로 그라운드에 섰다. 지명타자로 스타트를 끊은 그는 이후 포수로도 서며 복귀를 위해 속도를 냈다. 그러나 13일 고양과의 경기를 끝으로 잠시 휴식을 취했다. 3루 송구 도중 무릎을 삐끗하면서 재활조가 됐다.

28일 삼성전을 통해서 다시 가동에 들어간 백용환은 29일에는 그리운 챔피언스필드에도 섰다.

백용환은 "송구를 하다가 무릎이 조금 안 좋았는데 지금은 이상이 없다. 재활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말쑥했거나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 병원에서도 이상이 없다고 한다"며 "아직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런다운 상황이면 괜히 의식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재활을 하던 시간을 생각하면 야구를 하는 지금이 너무 좋고 행복하다. 빨리 돌아가고 싶다. 좋은 성적내서 1군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글·사진=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백용환이 지난 29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경찰야구단과의 퓨처스경기가 끝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시우



최경주

## '전설'이 부른다

김시우·최경주 메모리얼 토너먼트 출전

김시우는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제5의 메이저'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한국인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한국인 첫 번째 우승자는 최경주다.

김시우와 최경주는 오는 6월2일(한국 시간)부터 나흘 동안 미국 오하이오주 더블린의 뮤어필드 골프장(파72)에서 열리는 메모리얼 토너먼트에 나란히 출전한다.

메모리얼 토너먼트는 메이저대회와 월드골프챔피언십(WGC) 대회, 그리고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을 뺀 일반 대회 중에서는 특급으로 여기는 대회다.

메이저대회 최다승(18승)을 올린 '전설' 잭 니클라우스(미국)가 호스트를 맡아 치르는 대회로 최정상급 선수들이 거르지 않고 출전한다.

니클라우스의 '호출'을 거부할 수도 없거니와 니클라우스의 손길에 구석구석 미친 뮤어필드 골프장에서 경기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우승하면 니클라우스가 직접 우승 트로피를 건네주는 영광을 맞는다.

출전 자격도 까다롭다. 세계랭킹 50위 이내거나 PGA투어 페덱스 포인트 70위 이내가 아니면 출전하기 어렵다.

메이저대회나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자는 4~5년씩 출전권을 보장받는다. 아놀드 파머 인비테이션셔널에서 우승

하면 3년 동안 이 대회에 나올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한다. 니클라우스가 파머에 바치는 존경의 표시라고 보면 된다.

김시우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으로 4년 출전권을 받았다. 최경주는 2007년 이 대회 챔피언이다. 니클라우스가 직접 건네주는 우승 트로피를 받았다. 이 대회 한국인 우승자는 최경주뿐이다. 최경주는 자력 출전권은 없지만, 니클라우스가 특별히 초청했다.

김시우는 최경주에 이어 두 번째 메모리얼 토너먼트 우승을 노리지만 힘겨운 목표다.

세계랭킹 1위 더스틴 존슨(미국)과 세계랭킹 3위 제이슨 데이(호주)라는 높은 벽을 넘어야 한다.

세계랭킹 4위이자 2014년 우승자 마쓰야마 히데키(일본), 세계랭킹 6위 조던 스피스(미국), 그리고 애덤 스콧(호주), 존 람(스페인), 저스틴 로즈(잉글랜드), 리키 파울러(미국) 등 강호들이 즐비하다. 맑은 1년 전 니클라우스가 미국 대학 골프 최우수 선수에게 주는 '니클라우스 상'을 받은 인연이 있다.

세계 2위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는 늑골 부상이 도져 출전을 포기했다.

안병훈과 강성훈도 페덱스 포인트 순위로 출전권을 받았다.

/연합뉴스

## 프로야구 올스타전 투표 내달 5일 시작

프로야구 '별 중의 별'을 뽑는 올스타전 투표가 오는 5일 시작된다.

한국야구위원회가 30일 2017 올스타전 '베스트12'를 선정하기 위한 후보 120명을 확정했다. 구단 추천으로 선정된 120명은 드림 올스타(두산, SK, 롯데, 삼성, kt)와 나눔 올스타(KIA, NC, 넥센, LG, 한화)로 나눠 팬들의 선택을 기다린다.

투수는 선발과 중간, 마무리 투수 등 모두 3명이 선정된다. 포수, 지명타자, 1루수, 2루수, 3루수, 유격수 부문 각 1명, 외야수 부문 3명이다.

KIA에서는 양현종(선발), 김은동(중간), 임창용(마무리), 김민식(포수), 김주찬(1루수), 안지홍(2루수), 이범호(3루수), 김선빈(유격수), 최형우·버나디나·이병기(이상 외야수), 나지완(지명타자)이 후보다.

팬 투표는 오는 6월 5일부터 30일까지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와 다음(www.daum.net), 스마트폰 KBO 앱과 KBO STATS 앱에서 이뤄진다. 최종 결과는 팬 투표와 선수단 투표를 7대3 비율로 합산해 7월 3일 발표된다.

/연합뉴스

## 추신수 6호포...12경기 연속 출루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가 시즌 6호 홈런 솔로 아치를 그리는 등 장타력과 출루 능력을 모두 과시했다.

추신수는 30일 메이저리그 탬파베이 레이스와 홈 경기에 1번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7-10으로 뒤진 8회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우완 볼펜 호세 드 레온의 시속 145km짜리 고속 슬라이더를 잡아 당겨 비거리 131m의 우중월 솔로 홈런을 쳤다.

추신수는 0-1로 뒤진 1회말 에라스모 라미레스와 폴카운트 접전 끝에 볼넷을

골랐다. 이 볼넷으로 13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전부터 시작한 출루 행진이 12경기째 이어졌다.

5-5로 맞선 6회말 1사 1·3루에 2타점 중전 적시타를 친 추신수는 8회말에는 솔로포를 터트리며 장타력을 과시했다.

이날 추신수는 4타수 2안타 3타점 2득점을 올렸다. 시즌 타율은 0.248에서 0.255(157타수 40안타)로 올랐다.

텍사스는 추신수의 활약에도 8-10으로 패했다.

/연합뉴스



혼신의 힘을 다해 프랑스 파리의 롤랑 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랑스오픈 테니스대회 여자단식 1회전에서 쟁 싸이싸이(67위·중국)가 카롤리나 플리스코바(3위·체코)의 공을 리턴샷하고 있다.

/연합뉴스



## '말언니'가 간다

박인비, LPGA 슛라이트클래식 출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한국 자매 군단 '말언니' 박인비가 다시 우승 사냥에 나선다.

박인비는 오는 6월 4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갤러웨이의 스타턴 시류골프장 베이 코스(파71)에서 사흘간 열리는 슛라이트클래식에 출전한다.

이달 초 귀국해 한국여자프로골프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을 치른 뒤 휴식을 취한 박인비는 지난 27일 미국으로 돌아가 US여자오픈 개최 코스를 둘러본 뒤 이 대회 준비에 들어갔다.

국내에 머무는 동안 킹스밀 챔피언십과 볼빅 챔피언십을 건너뛴 박인비는 이번 대회에서 지난 3월 HSBC 위민스 챔피언스 제페 이후 시즌 두 번째 우승을 목표로 삼았다.

볼빅 챔피언십 부진으로 세계랭킹 정상이 무산된 유소연은 다시 한 번 세계랭킹 1위를 향해 신발 끈을 조인다.

세계랭킹 1위 리디아 고(뉴질랜드)와

3위 에리아 쭈타누간(태국)이 모두 이 대회에 출전하지 않아 유소연은 혼자 뛰는 셈이다.

'맛충형 캐디'를 새로 영입한 박성현도 첫 우승 기대를 품고 출사표를 냈다. 볼빅 챔피언십에서 어렵게 우승을 놓친 김재현도 한동안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는 소독을 얻은 박성현이 새 캐디와 어떤 호흡을 보일지 관심사다.

이미림, 양희영, 신지은, 이미향도 출전한다. 크리스티 커, 스테이시 루이스, 브리타니 린스컴 등 미국 베테랑 3인방이 경계 대상이다. 셋은 모두 이 대회 우승 경험이 있다.

안나 노르드크비스트(스웨덴)는 이 대회 3년 연속 우승이라는 금자탑에 도전장을 냈다. 노르드크비스트는 지난해 이 대회 사상 처음으로 2연패를 달성했다.

이 대회는 LPGA투어에서 이제는 찾아보기 힘든 3라운드 54홀 경기라는 점이 특징이다.

/연합뉴스